

유가 경계 여전하나 국채금리 상승세 주춤, 3대지수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델 실적 영향 소화, 국채금리 상승세 주춤하며 증시 상승

- 미 증시는 DOW +0.56%, S&P500 +0.46%, NASDAQ +0.45% 상승. 소재, 통신서비스, 금융 등 강세, 기술주 보합
- 전거래일 델(+15.8%)의 실적발표 후 AI 서버 수요 증가 기대 확대, 엔비디아(+3.2%) 등 관련 종목으로 훈풍 확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4%에 그침

국채금리 숨고르기, 고용 둔화 및 뉴욕 연은 총재의 인플레이 완화 진단

- 국채금리 하락 10Y 4.793%(-0.2bp) 2Y 4.383%(-0.8bp) 10Y의 경우 장중 4.821%까지 상승했으나 상승폭 반납하며 하락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관세 영향이 축소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서비스로 번지지 않고 있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증거가 있다고 진단.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코멘트
- 한편, 국제유가는 상승 WTI \$91.0(+0.9%), Brent \$95.6(+1.0%). 마-이란 교전으로 원유공급 불안 지속되고 있으나, 미 에너지 부장관이 지난 8/3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수송량이 1,700만 bbl을 상회했다고 밝히며 상승폭 제한

연준 베이지북은 물가 경계 여전, ADP 민간고용 둔화세 지속

- 금번 베이지북은 최근 미 경제활동 소폭 개선, 고용도 완만히 증가했으나, 물가도 완만히 상승하면서 엇갈림. 기업 비용압박 상당 수준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 가격민감도 높아지며 가격전가 어려운 상황으로 짚음. 경제 시그널이 엇갈리며 금리 방향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미미
- 8월 ADP 민간고용 +3.8만명 전월-컨센 하회. 3개월 연속 감소인데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경기 우려보다 추가 긴축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해석되며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VGO	브로드컴	-0.7%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보합. 4분기 매출액 가이드언스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초반 하락세. 다만 흑 탄 CEO가 컴퍼런스콜에서 AI 칩 매출이 FY27 약 \$115B (2배 성장) 및 FY28 \$230B로 급증하고 FY28 EPS가 \$30를 상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중장기 가이드언스를 제시. 또한 엔트로픽이 '27년 구글을 제치고 최대 고객사로 등극하고 오픈시가 2위 고객사가 될 것이라 밝히며 중장기 ASIC 성장 기대감에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 축소
HPE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1.9%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4%대 하락중. IT 하드웨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순이익과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고치 경신. '26 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주가 급등한 데 따른 높아진 눈높이와 더불어,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비용 급증 및 공급망 제약이 '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경영진 코멘트에 주가 하락
SNOW	스노우플레이크	-4.4%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22%대 상승중. 연간 매출 가이드언스 상향 및 AI 코딩 어시스턴트 툴의 빠른 도입세에 주가 급등. 분기 중 AI 코딩 어시스턴트인 'CoCo'를 도입한 고객 계정이 2,000개 이상 증가해 총 9,100개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AI 기능 확산 기대감 견인
NVDA	엔비디아	+3.2%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4B에 인수하는 협상 진행 중. 이르면 금주 내 최종 합의 가능성 보도. 성사 시 젠슨 황 CEO 역대 최대 규모 M&A로 기록될 것. 또한 하드웨어를 넘어 오픈소스 S/W 및 글로벌 AI 개발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 한편 클라우드스트라이크(-5.4%)와 보안 AI 세이프마인드 공개
GOOG	알파벳	+0.5%	미 연방법원이 법무부(DOJ)의 구글 디지털광고사업부 강제분할 요청을 기각. 반독점 리스크 완화에 주가 상승. 브린케마 판사는 작년 구글의 웹 광고 시장 독점 혐의를 인정하 바 있으나 구조적 분할조치는 기각
META	메타	+2.5%	AI 경쟁사 대응 위한 최신 플래그십 AI 모델 뮤즈스파크 1.3을 출시하며 주가 상승. 메타 최고AI책임자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에이전틱 역량과 코딩 작업에서 오픈AI의 GPT-5.6 Sol을 능가하고 엔트로픽의 Claude Fable 5.1과 대등한 성능을 구현함. 이전 모델 대비 토큰 소모량을 25% 감축하는 등 연산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API 공급 후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앱에 순차 적용 예정. 차세대 대형 모델 '워터멜론' 개발도 지속 중이라 밝히며 대규모 AI CapEx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완화